

# ‘18세 21일’에 정상 등극 김주형 “최연소 우승 뜻 깊다”

KPGA 입회 최단기간 우승기록도 동시 달성  
2개 대회 만에 첫 승 “절대 자만하지 않을 것”

‘무서운 10대’ 김주형(18·CJ 대한통운)이 KPGA 코리아 투어에 새 역사를 썼다. 18세 21일의 나이로 정상에 오르며 KPGA 최연소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김주형은 “지난주 연장전에서 패했던 아쉬움을 떨쳐냈다”며 “항상 한국에서 우승을 꿈꿨는데 드디어 이뤄내 행복하다. 최연소 우승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형은 12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컨트리클럽 리드·레이크코스(파71·7130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김주형은 김민규(19·14언더파 270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새로운 스타탄생을 알렸다.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수확했다. 김주형은 이날 KPGA 투어 프로로 신분 최연소 우승 기록과 함께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기록(3개월 17일, 109일)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종전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김경태, 2007년 4개월 3일), 최연소 우승(이상희, 2011년 19세 6개월 10일) 기록을 모두 갈아 치웠다. 김주형은 지난해 11월 아시아 투어 ‘파나소닉 오픈 인디아’에서 아시아 투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아시아 투어 대신 KPGA 대회 출전을 택했다. 김주형은 지난해 코리아 투어 데뷔전으로 치른 부산경남오픈에서 연장 승부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상을 차지하며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김주형은 “인터뷰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아쉬움이 많았

다”고 털어놓은 뒤 “일부러 내색하기 싫어 속상함을 표하지 않았다. 끝까지 잘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고, 지난주 연장 패배 아쉬움을 털어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될 때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것을 떠올렸다”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실 것이라 믿었다.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회 마지막 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김주형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홀까지 최대한 집중했다”며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해서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번홀에서 티샷 실수로 공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지만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이 플레이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은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제주도를 갔다가 2살 때 중국, 이어 필리핀을 거쳐 5살 때 호주로 떠났다. 호주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5살 때부터 재미삼아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15세에 태국 프로 골프투



12일 전북 군산CC에서 열린 KPGA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한 김주형 프로가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KPGA 제공)

어에 데뷔한 뒤, 아시아프로골프투어 2부투어, 필리핀 투어 등에서 활약했다. 17세였던 지난해 아시아 프로골프투어 파나소닉 오픈에서 프로 첫 우승을 기록했다. 그는 우승 경험에 대해 “아시아

투어 1부에서 1승, 아시아 투어 2부에서 3승, 필리핀투어에서 2승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KPGA 무대에서 ‘셋별’이 됐지만 김주형은 자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티샷과 쇼트게임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우승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1

## 장흥군, 체육인교육센터 건립...MOU 체결

정종순 군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해 스포츠메카 도약할 것”



지난 9일 장흥군, 대한체육회, 전라남도가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김승

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예술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참가 기관들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내놨다. 장흥군은 앞으로 각종 기반시설, 인허가, 공사 지원, 행정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운영 관리 인력 선발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장흥군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체육인교육센터는 장흥군 심천공원에 들어선다. 37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수용 규모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과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 윤영환 장흥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기대를 보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해, 장흥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프로야구 광주·부산·대전·수원 우천 취소...시즌 첫 월요일 경기 편성

오늘 오후 6시30분 예정...비 예보 이어져 개최 불확실

12일 열릴 예정이던 2020 KBO 리그 4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이로써 올 시즌 첫 월요일 경기 개최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수원(삼성-KT), 부산(롯데-두산), 대전(한화-SK), 광주(KIA-키움)에서 각각 개최 예정이었던 경기들의 우천 취소를 발표했다. 이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예보가 전해진 상황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다. 부산과 광주, 대전 지역은 오전

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도 빗줄기가 이어졌다. 오후 내내 비 예보가 전해지자 결국 KBO는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취소된 경기들은 같은 장소에서 월요일인 13일 오후 6시30분에 열린다. 시즌 첫 월요일 경기 편성이었다. 다만 13일에도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어 경기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 13일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경기는 10월에 재편성된다.

정승호 기자

## K리그2 경남, 2012년 FA컵 준우승 이끌었던 강승조 영입

“의미가 정말 깊은 팀...최선 다하겠다”

K리그2(2부)의 경남FC가 2012년 FA컵 준우승의 주역 강승조(34)를 영입했다. 경남은 말레이시아 리그 클란탄 FA에서 뛰던 미드필더 강승조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조건은 양자 간의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은 미드필더진 보강을 위해 선수를 찾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클럽단 FA와 계약을 종료한 강승조가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영입 작업에 나섰다. 강승조는 지난 2011년 전북에서 경남으로 이적, 2012년 주장을 맡아 팀을 FA컵 준우승과 함께 시·도민구단 최초로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강승조는 2014년 FC서울

대전을 거쳐 2017년 다시 경남으로 돌아왔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레이시아의 피낭 FA에서 뛰다가 올 시즌 클란탄 FA로 이적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리그가 잠정 연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하반기부터 경남의 일원으로 함께 하게 됐다. 강승조는 “경남이라는 팀은 저에게 의미가 정말 깊은 팀”이라며 “2017년 경남이 1부로 승격할때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설기현 감



독님과 함께 경남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메시, 라리가 최초 ‘20골-20도움’

11시즌만에...유럽 5대 리그 포함 앙리 이어 2번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최초로 20골-20도움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리오넬 메시(33·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새 역사를 썼다. 단일 시즌 최초로 20골-20도움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메시는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호세 소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라리가 36라운드 바야돌리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 아르투로 비달의 결승골을 도우며 1-0 승리를 이끌었다. 24승7무5패(승점 79)를 기록한 2위 바르셀로나는 1경기를 덜 치른 선두 레알 마드리드(승점 80·24승8무3패)를 추격하며 우승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이날 도움을 추가한 메시는 라리가 최초로 한 시즌 ‘20-20’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메시는 올 시즌 22골 20도움을 기록 중이다. 라리가에서 20도움이 나온 것은 2008-09시즌 사비 에르난데스 이후 11시즌 만이다.

유럽 빅리그 전체로 봤을 때 ‘20-20’을 달성한 것은 메시가 통산 2번째다. 프랑스 골잡이 티에리 앙리는 2002-0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24골-20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메시는 이번 시즌 라리가 득점왕을 향해서도 순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22골을 넣어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카림 벤제마(18골)보다 4골 앞선 1위다. 도움도 2위인 미켈 오아르자 발(레알 소시에다드·10개)의 2배에 달한다. 그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공격포인트(득점+어시스트) 3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다.

## 구례군, 올해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취소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6일 예정됐던

2020 국제 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를 취소한다고

40여개국 1500여명 참여 국내 풀코스 대회 중 최대 10일 밝혔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는 해의 40여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풀코스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다. 3개 종목 총 226km(수영 3.8, 사이클 180, 마라톤 42.2)으로 구성된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는 국내 철인3종 동호인이 가장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는 “오랜기간 준비

한 선수들의 기대에도 작년 태풍으로 인한 취소에 연이은 대회취소로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선수와 군민의 안전, 해외선수의 입국 여건, 방역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모두가 정상적인 활동을 편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이후 국내·외 모든 철인3종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광주, 전남 등 지역까지 지속되고 있어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부 대회도 개최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박진호 기자